

한국의 노년 남성들로 상상되는 공동체의 조건*

-2020년대 대중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김 종 수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2020년대 한국의 TV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재현되고 있는 노년 남성들로 상상되는 '공동체' 지향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노년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점검하였다. 2020년대 TV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재현되고 있는 한국의 노년 남성들은 노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지듯이 치매를 불행하고, 비극적인 질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치매를 노년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V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치매가 세대 간 이해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노년이 협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대 협력으로 회복되는 청년과 노년의 연대감이라는 공동체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리멤버>에서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모두 잃기 전에 일생의 영원이었던 사적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노년 남성 주인공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파 청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의 상황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때 주인공이 앓는 치매는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은유이다. 이 작품은 노년 남성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는 치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소설 속 화자는 그 죽음 이후 아버지에 대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환멸스러움을 해소하고 애도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실천하였던 '이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콘텐츠들은 공고한 가족공동체를 구축하며 일생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142)

보낸 한국의 노년 남성들에게 가족보다 더 큰 공동체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세대 간 협력과 연대감이라는 공동체의 정서, 실현되지 못한 공동체의 정의에 대한 책임의식, '이타주의'로 구축되는 공동체의 이념은 노년 남성들을 통해 상상되는 21세기 공동체의 조건이었다. 이같은 공동체의 조건을 상상하면서 21세기 한국의 노년 남성은 삶의 주체로서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찾아보고 활력을 갖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노년 남성, 공동체, 치매, 영화 <리멤버>, TV드라마 <나빌레라>,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1. 21세기 한국 노년 남성의 곤경

2024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년 세대의 삶은 곤경의 연속이다. 한국에서 '노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육체 노화가 진행되며 겪게 되는 신체적 질병이다(홍기형 2017). 또한 나이 들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년의 경제적 빈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는 국제적인 지표를 통해 10여 년째 대중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¹⁾ 게다가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노년 세대에 대한 불만과 혐오의 시선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지도 오래되어 노년 세대의 사회적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소외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한국의 노년 세대에게 가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노년 남성”²⁾들의 생활은 노년 여성에 비해 고립의 정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다.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14.2%)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 1위다. -김기환 (2024.4.24.) 참고

2)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의 노년 남성”은 연령 기준으로 현재 65세 이상 남성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전쟁체험세대”, “산업화세대”로 불리며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들이다. 2020년 이후로는 “베이붐세대(1953년 이후 출생)”도 노년 인구

도가 심하고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 노년 남성들은 장년 시절 가족 부양에 전력을 다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격변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가족 중심의 생존방식을 체화한 사람들로서 가족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사회 활동에 매진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에 맞춰 살아 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던 한국 남성들은 정작 가족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기리기 아빠”³⁾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한국 남성들의 가족 중심적 생활방식은 자신의 삶을 즐기거나, 가족관계의 화목한 일상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집중된 것이었다.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성공으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보상받는다 고 여기며 살아온 한국 남성들이 가족의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능력을 잃게 되면, 특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경제적 부양능력을 잃게 될 때부터 노년 남성들의 가족간 불화와 심리적 위축은 심화된다. 출근할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보다는 이전부터 좋은 관계를 형성해오지 못한 관성과 가부장적 관념에 기반했던 가족중심적 생활 방식 탓에 노년 남성들의 퇴직 상황은 가족 관계의 불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에 초점을 맞춰 살아온 노년 남성들의 삶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벗어나서는 활력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습적인 관계 이외에 형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많지 않은 노년 남성들의 사회생활은 제한적이다. 가부장제에서 자라났고 가부장적 인식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현재의 노년 남성들은 대개 가족과 타인에게 완고한 성격을 보임으로써

에 가세하며 한국의 노년 인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쓰인 세대 명칭은 최셋별(2018:197-240) 참고.

3) “자녀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국내에 남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이른 말.”- 김기란·최기호(2009:218) 참고.

상호존중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이 많다(최셋별 2018).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사회적 관계의 활기있는 관계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노년 남성들의 고립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중에서 노년 여성에 비교하면 노년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송인주·모은정 2021),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85%가 남성인 것(허소영 2010)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21세기 한국 노년 남성의 전형적인 면모는 한국영화에서 재현된 노년 남성 인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영화 <국제시장>(윤제균 감독, 2014)의 주인공 ‘윤덕수(황정민 분)’는 21세기 완고한 한국 노년 남성의 전형이다. 그는 유년시절에 한국 전쟁을 겪으며 피난 생활을 하였고 1960년대 파독 광부로,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에 군무원으로 생활하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온 노인으로 재현된다. 가족을 부양하며 격변의 사회에서 경제적 생존 활동을 벌인 산업화 세대 남성의 헌신적 면모를 가진 것으로 재현된 윤덕수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성격으로 그려진다. 젊은 세대와 갈등하고, 자기 고집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노인 끈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한편 영화 <죽여주는 여자>(이재용 감독, 2016)에서 등장하는 남성 노인들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국 노년 남성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재산이 많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매너 좋았으나 현재는 뇌졸중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모멸감에 괴로워하는 ‘세비로송(박규채 분)’이나, 치매에 걸려 먹어야 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쪽방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종수(조상건 분)’같은 노인들이 나온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빈곤과 병든 육체로 남은 생을 모멸감 속에서 견뎌야만 하는 노년 남성들의 또다른 면모가 이들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족과 집단에 헌신했던 자기의 생애에 만족한 채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젊은 세대와 충돌하는 노인의 모습이나, 가난하고 병들어서 남은 생을 모멸감 속에서 보내며 하루라도 빨

리 생을 마감하려는 노년의 모습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노년 남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두 극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노년 남성상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21세기 현대의 경제적 체제 속에서 노년을 사회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에서 형성된 것이다. 또한 청년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간 화해 불가능한 존재로 노년 남성들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그렇지만 한국 노년 세대, 특히 노년 남성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타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년학의 새로운 접근법이 문제제기하듯이(김경화·고봉만 2019), 21세기 노년 세대를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며 사회에서 분리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노년을 삶의 주체로 전환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면서도 노년 세대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년 세대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로 이해함으로써 21세기 한국의 노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시각 교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대에 발표되는 대중문화콘텐츠에서 재현되는 한국의 노년 남성들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극단적인 양상과는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자신의 가족만을 우선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완고한 ‘늙은 끈대’의 이미지나, 병들고 가난한 말년의 누추한 생활을 견디며 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노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삶의 황혼기에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노인이 재현된다. 또한 가족들에게 환멸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아버지에서 가족보다는 주변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던 자애로운 노인으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년 남성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평가되며 노년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연계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대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재현되고 있는 노년 남성들을 통해 상상되는 공동체의 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21세기 한국의 노년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이들에게 요청되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2. 세대 협력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정서

그동안 TV 드라마에서 청년 세대와 함께 등장하는 노년 남성들은 세대 갈등을 재현하는 데에 활용⁴⁾되거나 청년 세대 주인공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을 다루는 드라마에서 노년 남성들은 상처받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로서 부각되었다.⁵⁾ 세대 갈등의 부정적 면모를 전개하는 데에 활용되거나 청년 세대 주인공을 곁에서 도와주는 인물로 재현된다 하더라도 노년 남성 인물은 극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존재로 등장하여 왔다. 그런데 TV드라마 <나빌레라>(2021)에서는 정년 퇴직한 노년 남성이 주인공으로서 재현되면서 그의 상대역인 청년 세대 인물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나빌레라>⁶⁾는 신체적인 노화와 심리적인 무기력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노년 남성과 가정 불화에 따른 일상적 좌절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청년이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각자가 원했던 바를 이뤄내는 이야기이다.

4)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주연급 노인 등장인물의 수는 매우 적고, 작품 속에 나타난 노인은 갈등 조장에 필요한 주변 장치로 이용되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기업의 회장 등 단편적으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김상경(2020.2.10.) 참고

5) 예를 들어 <학교 2021>(KBS2, 2021.11.21.-2022.1.13.방영)에서 ‘영수’(박인환 분)는 주인공 ‘기준’의 할아버지로서 기준 아빠의 사업 실패 이후 손자인 기준을 키우는 70대 노인이다. 극중에서 영수는 주인공 기준과 상대역 지원에게 목공일을 가르쳐주며 자애로운 면모로 재현되었다.

6) <나빌레라>의 원작은 웹툰이다. 최중훈이 스토리를 담당하고 지민이 그림을 그린 웹툰 <나빌레라>는 2016년 7월 <다음웹툰>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2017년 10월 종료와 동시에 5권짜리 출판 만화로 출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퇴직은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가장은 가정의 경제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가장의 경제 능력이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로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남성들의 삶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때와는 판이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제적 생산성을 잃게 되면서 갖게 되는 무기력은 육체적인 노화와도 연관되는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쉽게 지치는 육체가 심리적인 무기력을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가족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가부장적 권위의 상실과 경제 활동에서 퇴장하며 갖게 되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이 한꺼번에 동반되어 노년 남성들은 삶에 대한 비판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70세 노인인 <나빌레라>의 주인공 심덕출(박인환 분)은 자신이 유년시절부터 꿈꾸었던 ‘발레’를 공연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왔던 사회적 무기력함과 신체적 질병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노년의 삶을 한 단계 고양시키게 되었다. 우편배달부로 30년 넘게 일해왔고,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아내와 가정을 꾸려왔던 그가 정년 퇴직 후 다른 노년 남성들과는 다르게 노년에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늙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발레’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일생동안 미뤘던 꿈인 발레 공연을 노년이 되어서 도전한다.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 남성이 잊고 지냈던 유년의 꿈을 좇으며 삶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 데에는 가족 밖의 존재인 청년 세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노년 남성의 꿈이 실현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청년 세대 역시 무력하고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 남성인 심덕출의 현재적 상황이 한국의 노년 남성들이 봉착한 경제적 · 신체적 · 심리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듯이, 이채록의 경우도 한국 청

년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기력감을 보여준다. 23세 이채록(송강 분)은 축구감독이었던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어, 외롭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발레니노이다. 축구선수로서 성공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폭행 사건으로 축구를 포기해야 하였고, 아버지의 구속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야하는 신세이다. 발레 전공으로 대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습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해체된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상실감 때문에 발레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삶을 비판하며 회의에 빠져들게 되는 노년 남성과 사회의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희망을 상실한 청년 주인공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돌봄의 기회를 마련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는 흥미롭게도 노년 남성에게 찾아온 ‘치매’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을 상실하는 병인 치매는 노인의 자기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탄나게 만들어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TV드라마에서 노년 주인공의 치매 발병은 치매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나빌레라>에서 치매는 노년 남성의 인생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해준 계기적 사건이며, 노년 남성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생의 의욕을 얻게 되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는 매개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덕출이 기억을 잃고 길을 헤매다가 찾아들어간 곳이 발레 교습소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 우연히 엿보았던 발레 공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노년에서야 발레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노년 남성의 보살핌이 싫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늙은 몸으로 발레를 하겠다는 덕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채록은 덕출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덕출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고 덕출의 처지를 공감하며 친밀감을 형성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년 남성이 자

신이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찾게 된 계기가 치매때문이었던 것이며, 또한 나아갈 방향을 잃은 청년이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상호 돌봄의 관계로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도 치매때문이었던 것이다.

‘치매’라는 공포스러운 질병이 갈등과 대립의 상대로 여겨졌던 노년 남성과 청년 세대를 서로 공감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에 매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세대 간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진 채 심리적인 소외의식에서 지내왔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서로를 알게 되면서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형성된 친밀감은 정서적 연대의식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정서적 연대의식은 상이한 삶을 경험한 세대 간의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된다(백경선 2022:303). 가족의 울타리를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부양하며 평생을 살아오느라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았던 노년 남성이,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갖지 못한 청년 세대를 만나 그들의 공통적인 처지- 사회 진입이 어렵고, 가족이 있어도 그들로서는 해소되지 않는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견뎌야하는 현재적인 삶을 공감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적 정서를 실감하게 된다. 서로 간의 처지에 대한 정서적 연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상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게 되는 일이 가족 밖의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나빌레라>에서는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의 주체라고 알려진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실상은 사회적 약자들로서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을 그려내 줌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의 정서가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노년 남성들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들과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상상되며, 열여겨가는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여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기억 투쟁으로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나빌레라>에서 노년 남성과 청년 주인공이 보여준 세대 협력의 친밀감은 영화 <리멤버>(이일형 감독, 2022)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80대 노인 한필주(이성민 분)는 같이 일하는 20대 인구(남주혁 분)와 직장에서 단짝이다. 이 둘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로 보일 만큼 연령 차이가 크지만, 이들은 친구 사이처럼 친밀하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손동작을 교환하며 인사를 하고, 인구가 손님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를 필주가 복수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준다. 인구가 집안 사정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려준 사채 때문에 압박을 받고 폭력을 당하게 될 때, 필주가 인구의 곁에서 고리대금업자를 상대하며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인구의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준다. 필주가 인구에 대해 가졌던 호의와 보호 의식은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필주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인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년 남성인 필주는 일생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조력자로서 청년 인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리멤버>는 노년 남성이 청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꿈꿔온 일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나빌레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노년 남성의 개인적인 복수의 작업에 청년을 조력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청년의 조력으로 노년 남성 주인공이 실현하려는 것은 치매로 잊혀져가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몰락시켰던 인물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것이다. 치매를 앓는 노년 남성의 복수극이 단순한 개인 감정의 사적 복수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한 역사적 단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리멤버>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제 강점기 일본과 친일파들이 저지른 만행과 그 피해에 대한 기억 투쟁(을)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혼란된 상황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기생하고, 일신

의 안위만을 좇으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온 친일 세력이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리멤버>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냈던 노년 남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영화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한국인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영화는 조선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었다.⁸⁾ 위안부 소재 영화들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그 피해에 대해 현재까지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한 한국인들의 감정을 집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리멤버>는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던 노년 남성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결정지었던 일제 강점기의 친일 부역 세력들에게 70여년이 지난 현재에 복수를 감행한다. 공동체가 지켜주지 못한 개인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역사가 왜곡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징병을 자원하였던 노년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굴곡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
- 7)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간 기억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월에 벌어진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 철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간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기억’ 투쟁은 진행 중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 철거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을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인 ‘군마 평화유족회’가 2004년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추모비를 설치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 反省 そして友好)’라는 문구가 일본어·한국어·영어로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일본 군마현 정부가 2024년 1월 29일부터 이 비석의 강제철거 작업을 벌였다. 2012년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한 것을 우익단체들이 ‘정치적 행사’라며 문제 삼았고,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설치 연장을 불허했다. 시민들이 비를 지키려고 10년 이상 추도식을 열지 않는 등 애썼는데도, 일본 법원은 설치 연장 불허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군마현은 이를 근거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집행에 나섰다. - 한겨레신문(2024.1.30.) 참고
- 8) 2010년대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눈길>(2015), <귀향>(2016), <아이 캔스피크>(2017), <허스토리>(2018) 등이 제작, 상영되었다. 이 영화들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정보 전달과 비극적인 역사성의 강조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성과를 냈다. - 유진월·이화형(2018:361).

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필주는 가족에 대해 매우 강한 책임감을 가진 노년 남성으로 설정되었다. 그가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서야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의 고향 양주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를 찾아 복수하게 된 이유는 노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건사해왔던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분가, 독립시켰고, 곁에 있던 아내도 먼저 죽게 되자 홀가분해진 주인공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원수에게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고서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족 관계에서 자유로와지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생을 살아온 한국 노년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노년 주인공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충실했던 인물로 설정되었다. 그는 일제 말 징병에 자원하였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다. 그랬던 필주가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삶을 결정지었던 사건이 가족을 파멸로 몰았던 친일부역 인물들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난 역사에서 공동체를 배반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좇던 인물들이 현재까지도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주인공이 치매에 걸려 자주 기억을 잃어버리는 노년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망든 노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여 복수를 실행하는 주도면밀한 베테랑으로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노년 남성의 복수가 가진 진정성을 강화한다.

사실 <리멤버>의 사건 전개를 활성화하면서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 요소는 주인공 필주가 걸린 ‘치매’이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복수를 끝내야 한다”는 영화 포스터의 카피 문구처럼 필주는 자신이 행해야 하는 복수조차 잊게 될 심한 치매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체결해야 할 원수들의 일본 이름을 자신의 손가락에 문신으로 새겨넣어 기억을 잃지 않으려 한다. 몸에 각인한 문자는 사라져 버릴 기억을 보완하는 표식이면서 동시에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⁹⁾ 이렇

게 강렬한 의지로 실현되는 그의 사적 복수는 개인적인 원한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반역자를 척결하는, 공동체적 당위와 연결된다. 그가 최종 복수를 감행하는 장소가 독립기념관인 것과 최종 복수 대상이 친일장교 출신으로 한국 전쟁 영웅으로 칭송 받는 김치곤 장군이며, 그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때가 김치곤 장군으로부터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재향군인상을 받게 되는 행사장이었음은 그의 사적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원한에 한정되지 않는 것임을 말해준다. 재향군인의 대표적인 노년 남성이 친일부역 일본 장교 출신이자 한국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국가적 영웅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치곤 장군을 저격함으로써 그동안 은폐되어 왔고 왜곡되었던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정당한 책임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리멤버>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노년 남성 인물을 통해 21세기에도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쇠하여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에 걸린 노년 남성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염원이었던 사적 복수를 실행한다는 설정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 청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영화 속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친일파 처단이라는 민족적 당위와 연결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노년 남성의 책임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대 협력의 매개로서 치매가 활용되었던 <나빌레라>와 달리 <리멤버>에서 치매는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은유로서 공동체에게 요청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리멤버>는 굴곡진 역

9) 일제강점기 피해자이면서도 피해받은 삶을 감추며 살아야 했던 노년 여성과 가족이 당했던 피해를 잊지 않으려 몸에 문신을 하여 복수하려는 노년 남성의 상황이 비교된다. 영화 <아이 캔스피크>에서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의 몸에는 일제 군인 남성들이 자행한 치욕적인 문신이 새겨져 있다. 세월이 흘러서도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글씨를 숨기기 위해 남에게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없었던 할머니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망각하지 않기 위해 의지적으로 몸에 표식을 새겨두는 필주의 사정과 망각하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몸의 표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야했던 위안부 피해자의 어두운 내면이 비교된다.

사를 바로잡지 못한 노년 남성이 이제라도 왜곡된 역사를 교정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가지는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4. ‘애도’로 부활하는 공동체의 이념

치매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년 세대가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망각의 병인 치매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현대 노화와 죽음, 소외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질병인데, 특히 치매를 앓는 당사자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타인과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병이기에 더욱 치명적이다. 치매가 노년의 삶에 끼치는 과정, 노인이 치매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병이 악화되면서 당사자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와해 과정은 2000년대 이후 문학작품에서 자주 재현되어 왔다(김미영 2018; 최운영 2018; 김지혜 2018). 특히 딸인 화자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술을 진행하는 모녀서사에서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바라보는 여성 화자의 고통과 연민을 주제로 전개되어왔다(김은정 2012). 이 소설들에서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치매 노년 여성에게 환기되는 ‘모성’과 치매 환자를 두고 가족이 봉착하는 간병과 돌봄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21세기 한국 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치매 서사의 관습은 여성 인물(어머니)과 여성 화자(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적 가족상황과 모성, 돌봄의 어려움 등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2022년에 발표된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화자인 딸이 치매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를 서술하고 있다. 기존 치매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모녀관계가 아니라 부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보다 확장된 관계 속에서 치매로 죽은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는 환멸스러웠던 아버지였으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죽은 아버지에게 조문 온 사람

들의 면면을 통해 아버지의 신념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정치적 유폐안이었지만, 그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연루되어 오랜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아버지의 늦둥이 딸이었던 화자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노년을 보내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치매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후에야 비장하고 투철한 혁명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간적인 노년 남성, 아버지를 애도하게 되는 것이다.

1948년 빨치산으로 지리산에 입산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가족과 함께 구례 산골 마을에서 살았던 “고상욱”이 82세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딸인 “고아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노년 혁명가가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타적인 삶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가장이었던 노년 남성들이 가족주의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생존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 한국의 가족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역할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고, 격변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생존 능력은 가족에 기대어 유지되어 왔던, ‘가족공동체’에 기반한 생존 원칙이 일반적이었다(김종수 2023:41). 이러한 가족중심적 사고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고상욱”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은 “물정 모르는 촌뜨기”(정지아 2022:14)¹⁰⁾였다. 그가 산골에 물건 팔러 왔다가 차편이 끊겨 난처한 방물장수를 좁은 자신의 집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재워써 보내거나, 자기네 집 모내기 품앗이를 포기하고 자동차 사고로 어려운 처지가 된 남의 집 사위 일을 도와주러 간 것은 그에게 남들의 어려움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딸이었던 화자는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가 “지리산서 멧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12)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할

10) 이후 책 인용은 괄호에 쪽수 표시함.

때마다 “뺨속까지 사회주의자”(24)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키워왔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치매 때문에 죽게 된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아온 조문객들의 면면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로서 평생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의 삶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아버지가 신념을 유지해 오면서 살아온 삶에 대한 경의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노년에 치매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연으로 다시 환기되는 아버지의 신념은 공동체가 마땅히 유지해야 할 이념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엘리트 사회주의자였던 “김일성 대학 출신” 빨치산 대원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던 모습과 비교하여 죽음에 담담했던 폭력배 “홍숙이”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을 보면 아버지는 연약한 신념보다는 삶에 당당한 의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였던 사회주의자가 감옥에서 자신만을 위해 사식을 몰래 먹던 것을 비판하며 감옥에서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말뿐인 평등이 아니라 몸에 밴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위선에 대한 경계가 담겨있다. 빨치산의 일원으로 집을 수색하다 발견한 순경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아버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람의 도리”(180), “민족이고 사상이고 인심만 안 잃으면 난세에도 목심은 부지하는 것”(137)이라며 사람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구독자이자 교련선생이었던 박한우와의 오랜 친분도 사상보다는 사람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베트남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7세 노랑머리 소녀와 담배친구였던 82세 고상옥은 남편의 폭력과 멸시를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노년 남성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이 작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촘촘한 그물망”(239)을 목도하게 된 화자는 정주아(2024)가 말하듯이 “나, 내 가족, 나의 이익”을 좇는 평범하고 악의없는 속물”이었던 자신에 대

해 되돌아보게 된다. ‘인간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왔고, 치매에 걸렸던 노년에도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손해보고 배반당하였지만, 자신의 신념이었던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라는 물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실천하였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장하고 투철한 사회주의 혁명가의 삶이 아니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위한 삶을 산 아버지의 인간적인 실천이 공동체가 갖춰야 할 이념임을 말하고 있다. 정해진 장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돌아다녔던 마을 곳곳에 유골을 뿌리면서 “아버지의 유골은 어딘가에 내려 앉아 무언가의 거름이 될 것”(258)이라는 딸의 바람은 바로 아버지가 몸소 실천한 이타적 삶이 여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이룩하게 될 공동체에 대한 바람인 것이다.

한국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힌 채 일생을 보내야 했던 노년 남성은 그 가족에게 끼쳤을 고난 때문에 가족의 원망과 한스러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이 커서 은밀하고 초라한 장례로 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만과 원망으로 점철되며 가족의 환멸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빨치산 노인은 죽음에 이르러 “해방의 기쁨”(198)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그의 인연들을 통해 그의 삶은 가족보다 중요한 이타주의가 사람들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선명한 이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룩된 사회주의자의 명분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이타주의가 공동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치매에 걸려 죽음을 맞이한 노년 남성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의 ‘애도’로 부활되는 ‘이타주의’라는 공동체의 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5. 21세기 한국 노년 남성에게 바라는 것.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노년, 특히 노년 남성에 대한 왜곡과 낙인찍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체제는 노년 남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한다. 노년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언론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불안 요소로 고착된다. 이 같은 인식에는 노년 세대를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년 세대 개인의 삶에서 그들의 행복은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사회 전반의 공공복지 지원 능력과 공적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담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달려있다(권수현 2019). 또한 노년을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꿈을 지향하는 한 주체로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노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함으로써 노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대론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분석한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대 TV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재현되고 있는 한국의 노년 남성들은 노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지듯이 치매를 불행하고, 비극적인 질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노년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갈 수 있는 계기로 치매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V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치매가 세대 간 이해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노년이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대 협력으로 회복되는 청년과 노년의 연대감이라는 공동체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리멤버>에서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모두 잃기 전에 일생의 염원이었던 사적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노년 남성 주인공

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파 청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의 상황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때 주인공이 앓는 치매는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은유이다. 이 작품은 노년 남성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는 치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소설 속 화자는 그 죽음 이후 아버지에 대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환멸스러움을 해소하고 ‘애도’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실천하였던 ‘이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불안정한 삶의 터전이 일상화된 비정한 상황을 계속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각자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한편으로 가족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보다 확대된 공동체 지향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콘텐츠들은 공고한 가족공동체를 구축하며 일생을 보낸 한국의 노년 남성들에게 가족보다 더 큰 공동체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세대 간 협력과 연대감이라는 공동체의 정서, 실현되지 못한 공동체의 정의에 대한 책임의식, ‘이타주의’로 구축되는 공동체의 이념은 노년 남성들을 통해 상상되는 21세기 공동체의 조건이었다. 이같은 공동체의 조건을 상상하면서 21세기 한국의 노년 남성은 삶의 주체로서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찾아보고 활력을 갖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수현(2019), 「노년의 삶과 정체성」, 『철학연구』 149집. 1-28.
- 김경화·고봉만(2019), 「인문학적 노년학의 관점에서 본 『나빌레라』」, 『인문과학』 73집. 101-133.
- 김기란·최기호(2009), 『300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대중문화 20년,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
- 김미영(2018), 「치매소설에 투영된 치매자의 주체적인 삶」, 『어문연구』 98집, 313-339.
- 김은정(2012),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61집. 303-327.
- 김종수(2023), 「작동하지 않는 가족공동체와 산업화 세대 여성의 위상」, 『한국학연구』 84집. 39-63.
- 김지혜(2018),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 표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2집. 53-80.
- 백경선(2022), 「텔레비전 드라마 속 노년과 청년의 연대와 그 가능성」, 『어문론총』 94집. 283-307.
- 송인주·모은정(2021),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유진월·이화형(2018), 「국가와가족에서 벗어나 주체로서다.<아이 캔스 피크>」, 『한국문학과 예술』 27집. 359-384.
- 정주아(2024), 「다시 그들의 역사를 읽을 때」, 계간 『작가들』. 218-227.
- 최섯별(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윤영(2018), 「치매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개인의 위기와 서술적 정체성」, 『인문논총』 75권 2호. 309-341.
- 허소영(2010), 「죽방 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한국노년학』 30권 1호. 241-260.

- 홍기형(2017), 「백세 인간시대의 신노년 트렌드」, 『노년교육연구』 3권 2호. 1-11.
- 김기환(2024.4.24.), 「OECD 노인빈곤율 1위, 부동산 연금화때 14-16% 낮아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633> (검색일: 2024.5.17.)
- 김상경(2020.2.10.), 「드라마 장악한 재벌, 외면당한 노인」,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505 (검색일: 2024.5.17.)
- 한겨레신문(2014.1.30.), 「‘기억·반성·우호’ 짓밟는 군마현 강제동원 추모비 철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6558.html> (검색일: 2024.5.17.)

❖ ABSTRACT

The conditions of the community that are imagined by elderly men in Korean pop culture contents in the 2020s

Kim, Jongsoo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rtrayal of 'community' orientation among elderly men in Korean TV dramas, movies, and novels in the 2020s. It reconsiders the social perception of elderly men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and examines their role as community members. The portrayal of Korean elderly men in TV dramas, movies, and novels in the 2020s often includes dementia, a common illness among elderly individuals. However, instead of viewing dementia as a tragic disease, these works depict it as an opportunity for elderly men to rebuild their lives in old age.

In the TV drama *Navillera (Like a Butterfly)*, dementia becomes a catalyst for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and care, fostering cooperation between the young and old. The drama portrays a sense of "solidarity" within the community that is restor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In the movie *Remember*, the elderly male protagonist seeks personal revenge before losing all his memories due to dementia. This storyline serves as a reminder of the fading interest within the community regarding the liquidation of pro-Japanese groups from the colonial era. The protagonist's dementia symbolizes the

disappearing memory of the community, embody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elderly men feel towards their community. In the novel *Aboeji-eui Haebang-ilji* (*A Journal of Liberation for My Father*), dementia directly leads to the death of the protagonist's father. However, after his father's death, the protagonist resolves his long-standing disillusionment with his father. The nove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based ideology of "altruism" that the father practiced through the process of mourning.

In the 2020s, Korean pop culture contents are encouraging elderly men,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building strong family communities, to seek a larger community beyond their families. As they enter a new stage of life, elderly men are striving to find a renewed self-identity and regain vitality.

Keywords: Elderly Men, Community, Dementia, Film Remember, TV Drama *Navillera*(*Like a butterfly*), Novel *Aboeji-eui Haebang-ilji*(*A journal of liberation for My Father*)

■ 논문투고일 : 2024. 05. 09

■ 심사완료일 : 2024. 06. 01

■ 게재확정일 : 2024. 06. 11

